

다음은 '김건희 특검'...野 '본회의의 패스트트랙' 추진

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 야권 공조 이어 강공 드라이브 오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1심 선고 결과따라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나선다. 탄핵 소추 과정에서 확인된 야권 공조를 바탕으로 여권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최종 8개월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야권 등 다른 야당의 협조도 장담할 수 없어 상당한 진전도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특검 추

진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 바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며 "내일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추진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제 나타난 탄핵소추 찬성표는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진실을 밝히길 원하는 민심이 높은 만큼 야권 공조에도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 추진시 소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에서 특검 추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놓겠다는

전략이다.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상정까지는 숙려기간 60일, 이후 심사기간 180일 등 최종 8개월이나 소요된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안건 지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 고민이다. 여기에 야권 공조도 그리 만만치 않다.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나 본회의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정의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칫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은 전례가 있기도 하다. 정의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10일 오전 선고되는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과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주장은 상당 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생을 지키는"

국민결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두둔'尹 대통령,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박홍근 민주 원내대표 '탄핵 가결' 대통령실·여당 반발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발을 두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여론을 오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 그럴 거면

탄핵 제도는 왜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159명을 잃고도 참회는 커녕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조아린 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장관을 지키려 국회 탓을 하며 적반하장식 막말 쏟아내기에 '울인'한다"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현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독립적인 헌법 전담 재판 최고법원"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 책무라는 국민의 상식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농작물 저온창고 보관품목 전향적 확대"

서삼석, 한전 답변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9일 "농작물 저온창고의 보관품목을 전향적으로 확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한전은 "향후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 저온창고의 보관품목을 전향적으로 확대 개선할 계획이며, 농작물뿐 아니라 축산물과 임산물등을 포함한 농산물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한전은 T/F 활동을 통해 농사용 전력 등 합리적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에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 의원은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



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불확실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저온보관시설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만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단속건수는 126건, 위약금 부과는 5억9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34건, 9700만원에 비해 건수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수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사정원 증원·전남권 의대 신설해야"

김원이,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대 의학계열 졸업자 근무지가 확인된 인원 중 43%가 서울·경기·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의료인력의 심각한 지역격차를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사정원 증원,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반드시 추진할 거다. 믿어달라"고 답변한 점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의대정원 증원이 포함됐다. 1월 말부터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 등 의사단



체들과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 가동에 대해 "그동안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작은 진전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증원된 의사정원 속에는 의대 신설 몫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사증원과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신설을)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충 자체가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하고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